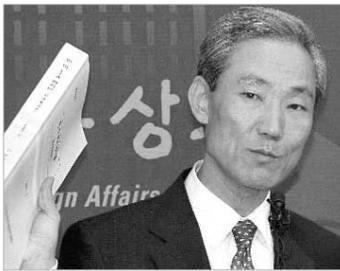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 제 3장 '농업' 부문, 5개 조문으로 구성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24일 한·미 FTA 협상 결과 작성된 협정문 및 부속서를 전문 공개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세부 문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6월말 양국이 서명할 협정문에는 동 법률 검토 내용을 반영한 문안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한·미 FTA 협정문 및 부속서는 농림부를 포함한 외교통상부, 재정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농업 관련 주요 사항은 제3장 '농업' 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에 기재되어 있다.

제3장 '농업'은 일반 상품과는 별개로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모두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쿼터(TRQ, 법률용어로는 '관세율할당')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농업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관세 양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산물 양허표는 제2장의 '부속서 2-나'에 다른 모든 상품의 양허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http://www.maf.go.kr)) 참조.

#### 〈주요 축산분야 양허 내용〉

- ◆ 쇠고기(40%) : 15년 철폐
  - 대미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6개 세번은 세이프가드 적용
- ◆ 돼지고기(22.5~25%)
  -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 2개 세번은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여타 세번은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
- ◆ 닭고기(18~20%) : 10~12년 철폐
  - 냉동 닭가슴살, 닭날개는 12년 철폐

### 농림부

#### FTA피해 모든 국내 농산물에 직불금 지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모든 국내 농산품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농가별 경영 자료를 통합 관리해 추후에 농가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쓰는 대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다.

지난 5월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가 정한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그해 실제가격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을 '한·미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FTA 이행지원특별법'으로는 키위와 시설포도(비닐하우스 재배 포도)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도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각종 지원금과 직불금 지급의 행정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물과 곡물, 원예작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만들었다.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2012년까지 전 음식점으로 확대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생산 효율화를 위해 보리, 호두, 밤 등의 재배면적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개별 농가의 경영 상태를 파악해 통합 관리하는 '농가등록제'를 올해 9개 읍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농업 정책과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력이 없는 고령농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과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등을 통해 조기 은퇴를 유도

하고 이들에게 산불방지 감시, 가축방역 요원 등의 일 자리를 알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FTA 이행 지원 기금 규모는 늘어나고 기존의 투·융자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 없는 농가에 주는 지원금 규모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 ■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예방위주의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림부는 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해 예방위주의 여름철 농업재해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식량정책국장이 각 분야별 3~4명으로 구성된 5개팀(초동대응·농산·원예특작·축산·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재해별·분야별 사전·사후대책을 총괄한다.

특히,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은 현지에 급파되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조기 응급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부는 2007년도 여름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시·도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에 시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농업인에게도 지도·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풍수해 사전대비 합동 T/F팀'을 구성해 지자체 재해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2만6천여 개소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표 1〉 주요 품목별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품목	대책
한우·육우	· 쇠고기 이력 추적제 2008년 모든 한우와 육우로 확대 ·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2012년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
돼지	환기, 배기 및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율 감소
닭·오리	삼계탕 등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
과실류	당도 기준 강화 및 표시 의무화
채소류	법인체 중심의 규모화를 통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향상
인삼	재배과정 이력관리 추진, 인삼수출단지 신규 육성
콩	정부와 농협이 공동자금 조성해 계약재배 사업 추진
보리·호두·밤	재배면적 축소, 대체작목 개발

###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

농림부는 2007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45등급 중 13등급(표준소득기준 월 48만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표준소득기준 월 52만원)부터 45등급(표준소득기준 월 360만원)까지는 13등급의 지원액 21,600원을 정액 지원했으나, 2007년부터는 50% 지원대상을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2006년에는 연 11만9천원~25만9천원에서 2007년에는 연 11만9천원~28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서 편성지원 받아왔으나, 2007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민연금 지원에 따라 농어민 연금가입자 27만5천명의 연금보험료 1,874억원 중 761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그만큼 농어민은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내 동물 질병 진단 결과 책자로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에서는 2006년 혁신과제 수행 결과인 '동물 질병 진단 자료 모음집'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역원에 의뢰돼 진단됐던 사례들을 모아 만든 것으로 총 47사례에 대해 축종별로 구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또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해 칼라 사진을 첨부했다.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최근 국내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 사례를 방역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현장에 도움이 되는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문일 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소책자가 현장 질병 진단 및 방역관련 종사자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진단 과정과 국내 질병 발생의 현황을 알려드리고, 나아가 신속한 진단으로 질병전파를 막는데 유익한 방향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만을 담고 있으며 질병 진단을 담당하는 일선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축산연구소

### 개소 55주년 기념식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지난 5월 10일 대강당에서 개소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상진 소장을 비롯 연구소 직원과 축산관련 대학의 젊은 과학자 및 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축훈제, 우수논문시상, FTA에 대응한 가축개량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상진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연구소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위상에 걸맞는 연구소 이름 개칭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방화에 따른 농축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연구원 모두 혼연일체돼 연구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 바이오에너지 기초연구 착수

축산연구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바이오 에너지 가치가 높은 식물들을 선발해 사료곡물을 대체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 올 하반기에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연구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작물들의 대부분은 식량 또는 가축 사료와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어 곡물가격을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브라질, 중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으로 세계 사료곡물 가격이 급등해 우리나라 양축 농가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식물 중 에탄올 생산 원료는 셀룰로오스 계통이 유망하며 현재 미국 등지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를 중심으로 수수·사탕수수·고구마 및 맥류 등에서 주로 생산한다.

이에 따라 축산연구소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성이 높은 식물을 계속 탐색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히 도입종 중에서 스위치그라스 같은 목초는 에탄올 생산량이 330~4000로 매우 높고 우수해 유망시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5월 29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축산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정섭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또 한 차례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며, “농업부문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첫 발제는 농경연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변화될 중장기적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농림부 박현출 농정국장이 ‘한·미 FTA 보완대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해 일정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한 “농업을 지탱할 70세 미만의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자에게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직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간접, 단기적 대책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가 마련되며 직불금은 단순가격이 아닌 조수익을 기준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완전 폐업을 원하면 5년 동안 폐원지원금을 지원하나 보상 수

준과 조건은 한·칠레 FTA 때보다 까다로워진다.

이어 최정섭 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날 발표된 '한·미 FTA 보완대책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재원마련이 난제라는 지적 등이 있었다.

〈한·미 FTA에 따른 육계분야 경쟁력 향상 방안〉

- ◆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용 확대
  - 계열업체 중심으로 가금 운반 전용 차량 운영 추진
    - 계열화 사육비용 : (2006) 72% → (2013) 79% → (2017) 83%
- ◆ 사육단계 HACCP 도입(2008)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 ◆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2009)하고 작업장 명칭을 표시해 수입육과 구분 유도
- ◆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
- ◆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해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표시관리 및 농정홍보용 차량 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소비자에게는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에게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각종 농업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관리 홍보차량'을 제작·운영하여 찾아가는 농정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차량은 학교와 기관단체, 재래시장 및 각종 행사를 방문해 현장에서 원산지 식별방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농정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홍보차량에는 수입 및 국산농산물 60여점을 비교·전시해 우리농산물 식별방법을 교육하고, 대형 PDP화

면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 안전성 및 친환경농산물관리제도, 좋은 농산물 고르는 법, 주요 농업정책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차량은 서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배치해 수도권지역 홍보에 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홍보효과를 평가해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국내 1호 무항생제 닭고기 인증 승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이기두)은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 충북바이오축산영농조합(대표 이준동)의 '청풍명계'에 충북 최초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승인했다고 지난 5월 22일 밝혔다.

이준동 대표는 이날 농관원 충북지원 이기두 지원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며 '청풍명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농장이 동시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충북바이오영농조합법인은 ISO9001 인증과 유기축산물 인증에 이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까지 획득해 '청풍명계'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충북바이오영농조합법인은 충북도 지역특화사업인 '청풍명계' 브랜드 사업을 통해 친환경, 안전성을 내세워 닭고기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이날 인증서 전달식에서 이준동 대표는 "청풍명계가 명실공히 고품질 닭고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청풍명계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무항생제 축산물은 최근 한·미 FTA 타결로 국내 축산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경을 살리고 웰빙시대에 어울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등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물등급판정소

### 정부지원 조직진단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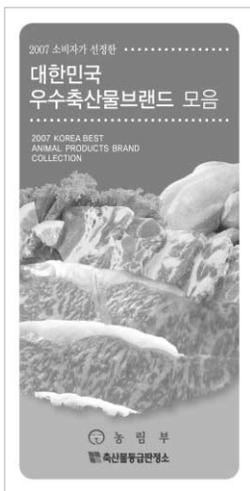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웅)가 노동부 산하 전문 컨설팅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로부터 조직진단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금번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은 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엄격한 기관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뉴패러다임센터로부터 5월 21일자로 최종 통보받았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후, 뉴패러다임센터와 조직진단 컨설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6월부터 뉴패러다임센터 소속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 학습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해 변화관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조직발전을 위한 제도설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금번 프로젝트의 진행은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게 된다.

### ■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음집 발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우수축산물인증브랜드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7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음' 홍보책자 2만부를 발간하여 소비자단체, 원산지의무표시 대상업소,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브랜드경영체 등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축산

물브랜드 모음'에는 2007년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 받은 한우 15개, 돼지 14개, 육우 2개, 육계 5개 등 36개 브랜드에 대한 경영체 현황, 브랜드육의 특징, 업체 수상경력 및 주요 판매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국축산경영학회

### 하계 심포지움 개최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김정호)는 오는 6월 1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방 시대의 한국 축산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07년도 하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일시 : 2007. 6. 14(목) 10:0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
- 기초발제 : 한·미 FTA에 따른 축산정책 방향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
- 주제발표
  - 제1주제 : 축산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방안  
(KREI 정민국 · 허덕 박사)
  - 제2주제 : 자연순환형 농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KREI 김창길 박사)
  - 제3주제 : 한우 생산이력추적제 추진 방안  
(한경대 장경만 교수)
  - 제4주제 : 축산물 HACCP제도 개선 방안  
(건국대 최승철 교수)
  - 제5주제 : 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방안  
(건국대 한성일 교수, 강원대 신해식 교수)